

큰스님 수행한담

“부처님처럼 마음쓰면

운제스님 (태고종 승정)



1922년 충북 괴산 생
37년 인변 석학사에서 재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일본 임제대 수료,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경북대학교학원
석사
1960~67년 조선대 역사학과
교수
68~87년 건국대 사학과 교수
88~91년 태고종 총무원장
92년 태고종 선암사 승가대
학장
98년 태고종 승정
역·저서 <원효사상> <유미경
강설> <열반경 중요> <기원의
꽃> <선사백수> 등 다수
현재 원효연구원 이사장

“번뇌는 자만심에서 나와요
특별한 능력 가졌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과 불화 생겨요”

해 공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 것이요.
여덟 살 때 일기를 한문으로 쓸 정도로
한문이 몸에 배었으니 불경을 한 번
씩 보지만 해도 뜻이 새겨졌습니다.
옛날 공부라는 것은 글을 외워야 하는
것이었는데 한 번만 봐도 자연스럽게 외
워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니 강원에서
월반 아닌 월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사자부터
꼼꼼히 배웠더라면 더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사교보다 사자 감
의할 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공부는 단
계 단계 밟아 나가야지 남 열을 공부하
는 것을 하루에 다 마친다고 해서 그것
이 반드시 좋다는 법도 없어요.
그렇게 건너 뛰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
이에 남이 하는 것은 영 어설피 보이고
남의 말은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원할까 보이는 거만함이 은연중 몸에
배는 지도 모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
지만 남들에게 거만함을 떨고 있었을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면 지금도 등짝이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⑩

故相師云 汝但於心無事 於事無心
고조사운 여단어심무사 어사무심
自然虛而靈寂而妙 是此心旨也
자연허이영적이묘 시차심자야
揀此則以無安心 非與真心妙
거차칙이무망심 비무진심묘
用也 從來禪師 說無心功夫
용야 종래제사 설주무심공부
類各不同 今總大義 略明十種
유각부동 금총대의 약명십종

一條白練去 冷澈澈地去 古廟裏香爐
일조백련거 냉추추지거 고묘리향로
去 直得絕塵離分別 如鏡以凡
거 직득절림섬리분별 여차사을
方有少分相應 此是休歇息妄功夫也
방유소분상응 차시휴림식망공부야

둘째는 쉬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이 일어나면 곧 쉬고, 인연을 만나도 즉시 쉬어야 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가닥 흰 비단실처럼, 한 방울 조심스레 밟고 가듯, 옛사람 안의 향로처럼 엄숙하고 고요히 하여 바로 망상을 끊고 분별을 떠나서 마치 바보와 같고, 막대기 같이 되어야 비로소 조금 진심에 부합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쉬고 쉬어서 망념을 없애는 공부이다.

三泝心存境 謂做功夫時
삼심심존경 위주공부시
於一切妄念俱息 不顧外境
어일체망념구식 불고외경
但自息心 安心已息
단자식심 망심이식
何有有境 即古人 聖人不外境
하해유경 즉고인 탈인불탈경

그러므로 조사는 “다만 너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일에 걸리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히 비어있되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도 신묘하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참뜻이다. 이렇게 볼 때 망상이 없다는 것이지 진심의 묘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여러 선사가 무심의 공부에 대한 말씀은 그 유형이 각기 다른데 이제 대의를 총괄하여 대략 열 가지로 밝히겠다.

一曰覺察 謂做功夫時 平常絕念
일일각찰 위주공부시 평상절념
隄防念起 一念緣生 便與覺破
제방념기 일념재생 편여각파
妄念覺破 後念不生 此之覺智 亦不須
망념각파 후념불생 차지각지 역불수

“다만 너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일에 걸리는 마음이 없으면 신묘”

用妄覺俱忘 名曰無心 故相師云
용망각구망 명망무심 고조사운
不怖念起 只恐覺遲 又屬云 不用求真
불보념기 지공각지 우게은 불용구진
唯須見見 此是覺察息妄功夫也
유수식견 차시각찰식망공부야

法門也 故有語云 是處有芳草
법문야 故有語云 是處有芳草
법문야 고유어은 시처유방초
滿城無故人 又屬公云
만성무고인 우방공운
但自無心於萬物 何妨萬物
단자무심어만물 하방만물
常圍繞 此是泝心存境
상위우 차시심존경
息妄功夫也
식망공부야

첫째는 깨달아 살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각이 일어남을 막으려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깨달아서 부쉬버려야 한다. 그 망념을 깨달아서 부쉬버리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이러한 깨달은 지혜마저도 쓰지 않고 망념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분별도 함께 있어버리면 그것을 무심이라 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라. 단지 깨달음이 더더질까를 두려워하라” 하였다. 또 계승에는 “진심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견해를 쉬어 버려라” 하였으니 이것이 깨달아 살피서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셋째는 마음이 없애고 경계는 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일체의 망념을 다 쉬어서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의 마음만 쉬게 되면 망상은 이미 쉬게 되는 것이니 바깥 경계가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곧 옛사람이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하는 법문이 그것이요. 그러므로 ‘여기 향기 나는 풀이 성 안에 가득하나 옛사람은 없구나’ 하는 말도 있고, 또 방거사(龍居士:당나라 때의 재가불제자)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마음이 없으면 만물에 둘러싸였다고 해서 무슨 방해가 되리오’ 하였다. 이것이 곧 마음만 없애고 경계는 둔채로 망상을 없애는 공부이다.

二曰休歇 謂做功夫時 不思善不思惡
이일휴림 위주공부시 불사선불사악
心起便休 遇緣便休 古人云
심기편휴 우연편휴 고인운
심기편휴 우연편휴 고인운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황토 흙벽돌 기계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 황토 토굴 ① 10평형 ② 1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2-7116
FAX: 0551)283-6531

활법 자격취득.창업.부업

Advertisement for Hwalbeop (Hwalbeop) featuring lists of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diagram of the human spine.

황토 흙벽돌 기계

Advertisement for Hwangdo Hwalbeop Machine, including product details, pric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wangdo Hwalbeop Machine.